

真子同送五倫起

李純奭君莊雅

박영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 유학

저는 처음부터 인쇄기술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인쇄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루돌프 디젤이란 학교였습니다. 대학개념이 아닌 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년 8월부터 기술을 배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기초 기술을 가진 사람은 2년이면 졸업 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5년이 걸립니다.

최초의 해외 인쇄 유학을 가셨는데 몇 년도에 가셨는지요?

1958년도 2월 말 경에 노기남 대주교님(당시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의 추천을 받아 천주교신자 5명이 독일 쾰른으로 갔습니다. 쾰른에서 노기남 대주교님과 친분이 있었던 프랑크 추기경의 인솔로 콜핑하우스(노동자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콜핑하우스가 기술학교인 줄 알고 갔었는데 나중에야 콜핑하우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인쇄기술을 배우러 갔기 때문에 인쇄학교를 찾아 뉘른베르크로 갔습니다. 제가 간 곳은 루돌프 디젤이란 학교였습니다. 대학개념이 아닌 기술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년 8월부터 기술을 배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기초 기술을 가진 사람은 2년이면 졸업 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은 5년이 걸립니다. 저는 기초 기술이 없었기에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최초로 인쇄기술자 자격증을 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이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요? 인쇄기술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1년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대학을 나와도 그때 당시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 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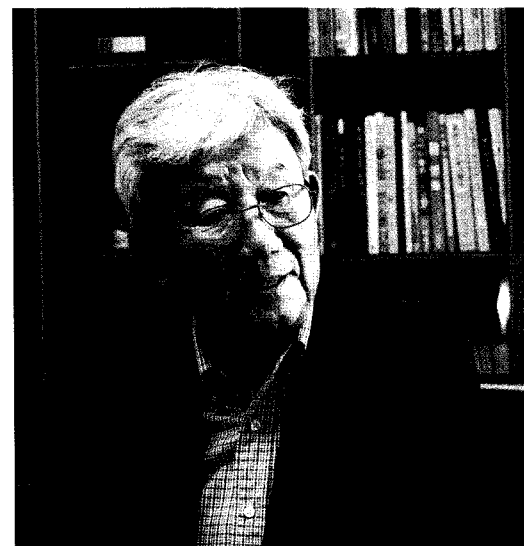
인쇄 기술을 배우게 된 계기는 예전에 하이델베르크에 계셨던 이성강씨의 삼촌 되시던 분이 인쇄기 조립을 하셨는데 아버님의 친구 분이기도 했던 그분이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아들이 독일에 가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물음에 인쇄기술을 가르치라고 해서 그때 아버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한국사정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강씨가 한국문화인쇄 김창환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제가 한국문화인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재료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고 기계들도 낡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3년에서 67년 말까지 근무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65년에 작고하시면서 9남매 중에 맏이인 저로써는 그 많은 식구들(9남매)을 거느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문화인쇄에서도 보수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마을 운트 코란 회사에 들어가 사진제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라비아인쇄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회사였습니다.

사진부에 한 30명이 있었는데 외국인은 이태리 사람, 희랍 사람, 헝가리 사람 2명, 저까지 해서 5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68년부터 74년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인의 성실함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야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술자가 되면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랑스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인정신이 결여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회사에서도 자격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 한국에 와서 천주교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분도출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술부분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한동안 영업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무이사로 정년퇴직(2005년)을 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30여 년 동안 몸을 담은 회사입니다.

창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에 크게 실패한 모습을 본 이후 제가 회사를 차린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쇄기술면에서 그 당시와 지금의 인쇄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는 스캐너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그래서 예전의 저희 기술이 다 없어졌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인쇄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처음(1963년) 한국으로 들어올 때 독일에서 사용하던 재료(코닥의 트라이마스크, 그라비아트 멀티마스크, 아그파 베리마스크(흑백))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놀라워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게 몇 박스 되지 않아서 그냥 실연에만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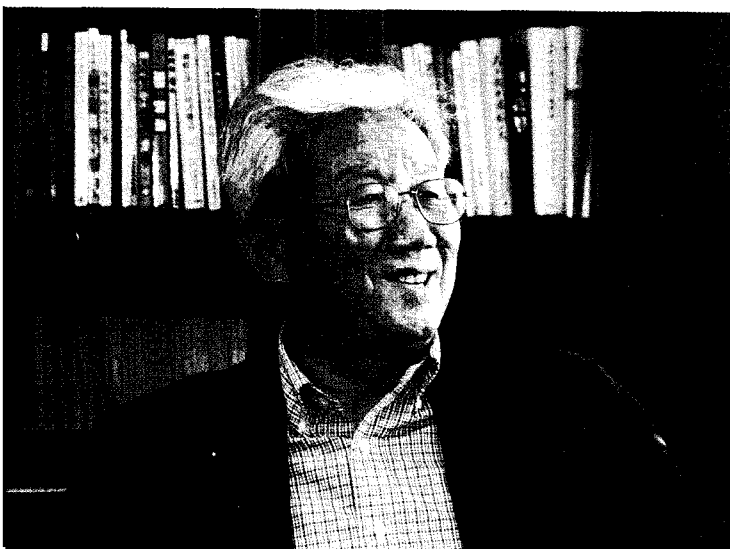
인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쇄기술인으로써 한 말씀 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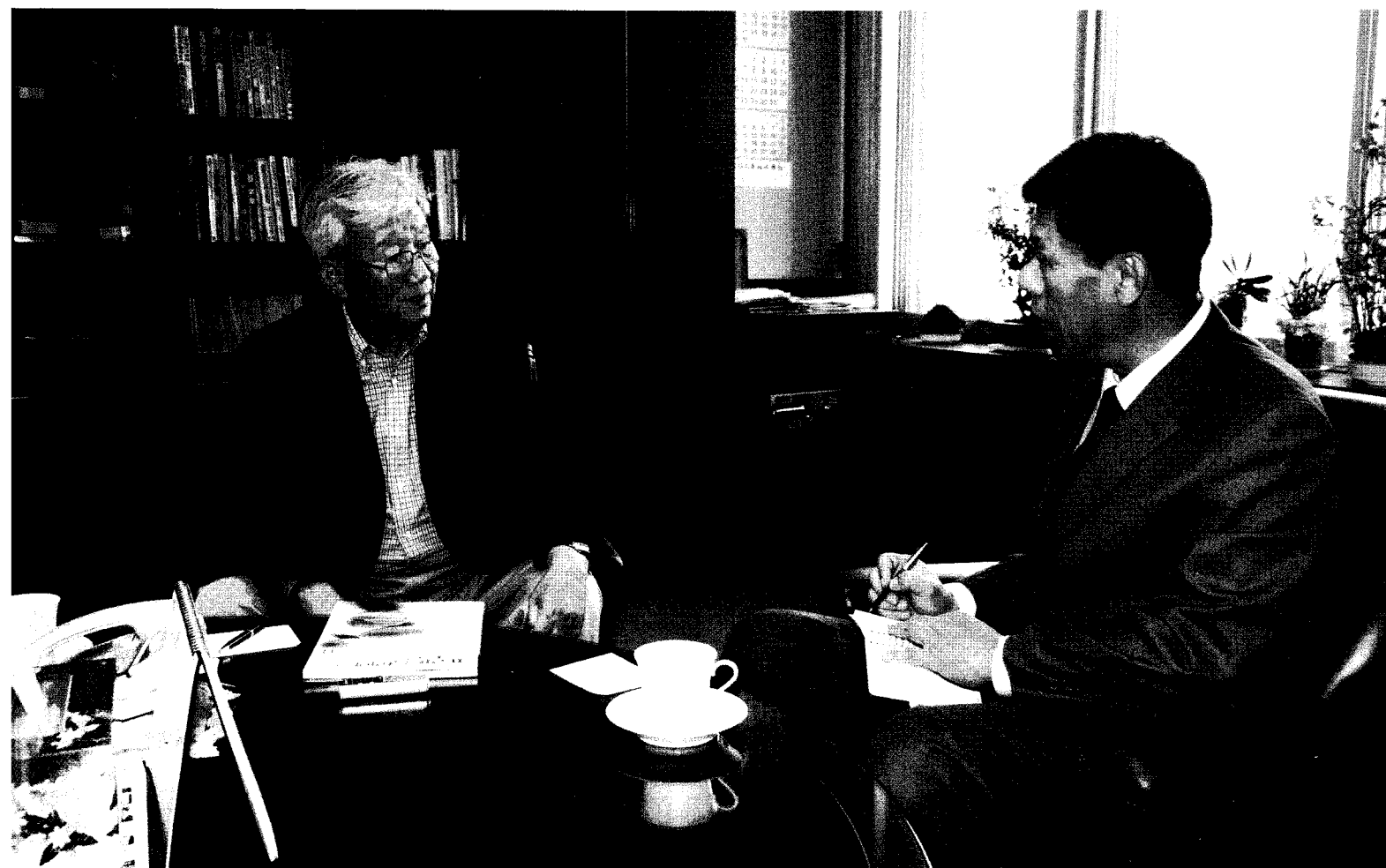
독일을 예로 들면 인쇄인쇄기술자의 수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제판 쪽은 최상층에 속합니다. 독일에선 굴뚝 만드는 사람 다음으로 사진제판 쪽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디지털화가 돼서 너무 쉽게 배우고 이론 없이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외에는 별로 인쇄기계를 만드는 나라가 얼마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쇄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인쇄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독일에서 계속 일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돌아오신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독일에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5~6년 정도 더 일을 하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분도출판사에서 제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활판인쇄에서 오프셋인쇄로 바꾸기로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도출판사의 모원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인쇄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독일에서는 기술자가 되면 대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인정신이 결여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있어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회사에서도 자격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극소수의 회사만이 인정을 해주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꾸 독일을 예로 드는데 독일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롱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독일에는 각 인쇄 회사마다 단기적으로 인쇄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은 못하고 걷는 것만 합니다. 보통 12~13km 정도 주 3~4회 걷습니다. 틈만 나면 걷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춤출 줄 모르고, 운전할 줄 모르고, 컴퓨터 못하고, 골프도 못하지만 술은 아직도 좋아합니다.☺

대담_유창준 국장 chang@print.or.kr

사진_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